

설계자 선정을 위한 요식행위인가

The Design Competitions - Is It a Mere Formal Act?

김인철 / (주)건축사사무소 아arki움  
by Kim In-Che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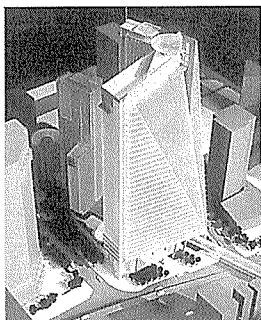
지난해에 치루어진 설계경기들을 되짚어 보는 글을 맡았다. 당선작들에 대한 평가 또는 그것들에서 보여지는 경향들을 정리해 보자는 것이 편집 의도인 듯 하다. 그러나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은 나에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한해의 설계경기를 지켜보며 느낀 점들을 말하려고 한다. 응모자와 심사자의 경우를 왔다갔다하는 어중간한 입장에서 완전히 객관적이될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달관의 경지에 오른 원로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이 지극히 개인적이며 주관적인 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 혹시 저질러질지 모르는 실수에 대하여 그런 맥락에서 양해를 미리 얻으려 한다. 아직도 익숙지 않은 용어「현상설계」 아닌 「설계경기」에 대한 원론적인 풀이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다만 개념만이라도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필요로 하는 좋은 건축의 안을 널리 모아 바르게 뽑는 것이 설계경기의 이유라고 우선 정리한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올해에도 많은 설계경기가 치루어졌다. 공적, 사적 구분이나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통계적 수치는 어느 곳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와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우리의 풍토에서 결과의 미확인 수치는 당연한 것이다. 공공연한 설계경기를 비롯하여 은밀한 프로포즈까지를 총망라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수치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계경기에 관한 정보가 매우 폐쇄적이고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미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인 지 온갖 미디어를 살살이 뒤지지 않고서는 응모자가 자신에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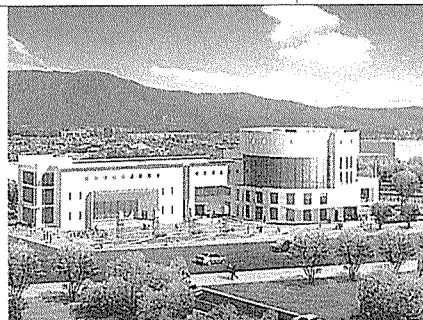
합한, 또는 시도해 볼만한 설계경기건을 사냥할 수 없다. 구하려는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정보수집 능력에서 이미 판가름이 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정보의 공유와 선택의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면 협회의 존재이유중 큰 몫이 사라지게 된다. 뒷정리나 하려고 회관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삼풍사고이후 황망중에 속죄양이 되어 버린 「설계·감리」를 위해 온갖 보완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다.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벅찬 조항들 속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것은 매우 구체적이다. 공공건축물의 설계경기인 경우조차 발주자인 관청은 응모자에게 온갖 서류들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인정한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은 접어 두더라도 설계경기를 부실담보물 경매처리하듯 치르고 있다. 어렵게 정보에 접근하였다 하더라도 입장불가의 미성년자 처지가 되고 만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즐겁겠지만 그런 조건들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 협회비의 징수기준이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차별되어 있지 않을진데 이를 방임하는 것은 분명히 협회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어야 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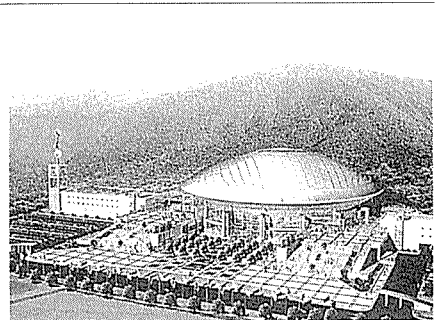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목청을 돋우어 얻어낸것 중에 설계경기에 관한 내용은 특별하였다. 심사위원수의 절반을 설계실무자로하며 그 명단을 사전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응모자들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부담은 시간과 노력에 대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안이 어떻게 읽히며,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를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현실적이며 좀더 투명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심사자의 구성과 사전공개가 제도화되었음에도 올해의 경우 대부분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심사자의 구성은 쉽게 적용되고 있지만 사전공개는 눈가림에 지나지 않아 형식적일 뿐이다. 공개일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을 이용해 공모 발표 당사가 아닌 접수마감일이라던가, 심사 직전에야 명단이 발표되고 있다. 결국 원래의 의도는 실종되고 형식만 남아 오해를 만드는 또다른 이유가 되었다. 비밀이 완벽히 지켜질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비밀이 공정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장치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어쩔 수 없이 반쯤은 공개적



을지로 2가 도심재개발(원양건축)



순천대 향림학술회관(유창건축+대경건축)



대구실내체육관(합동건축+원도시건축)

이어야 하는 제도 아래에서도 여전히 비밀주의가 가능할 것이라 고집하고 있다. 이러이러한 성격의 심사로 진행될 예정이니 뜻있는 작가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당당한 공모요강의 발표를 기대한다. 응모자와 심사자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사사로운 관계보다 공개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설계경기는 하나마나한 요식행위에 머물고 만다. 협회가 매년 치루고있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준공건축물부문 심사위원조차 사전공고를 하지 못하는 마당에 남을 탓할 수만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다.

사무소의 작업방식이 제도판에서 CAD로 바뀌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기대는 설계경기의 참여를 위한 부담이가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판넬의 제작이 기계적인 기법으로 해결된다면 아이디어와 내용을 다듬을 수 있는 과정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수백만원씩 따로 들여야 하는 투시도 제작까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알고보니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결과의 완성도는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장비의 용량과 동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외주 거래처가 투시도제작실에서 총무로 바뀌었을 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무거워졌다. 백지에 흑백으로 제작하라던가 청사진으로 제출하라는 규정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것이 되고 말았다. 당선만이 지상목표가 되었을 때 그에 동원되는 수단을 통제할 수 있는 규약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바다 건너의 첨단기법을 동원하는 것이 응모자의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할말이 없다. CAD로 설계하고 있는 보조사들의 고민이 건축사시험은 여전히 제도판으로 치루고 있다는 절망인 것처럼 작업환경의 변화를 팔짱끼 채 내버려두고 있는 어른들은 무엇을 어찌자는 것일까? 현란한 기법의 프레젠테이션을 견어내고 내용의 알맹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심사를 과연 얼마나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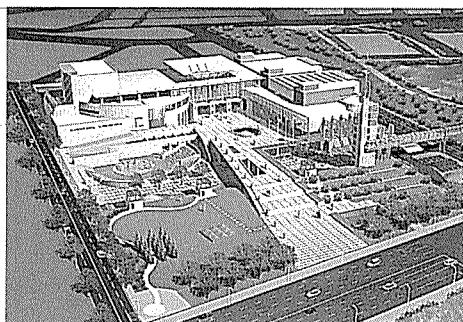
시장개방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런저런 회의들이 수없이 열렸던 적이 있었다. 사무소 대형화, 법인화 등으로 대안만 무성하다가 건설회사의 설계허용까지 들먹여지고 난 다음 지금의 모습은 참으로 씁쓸한 것이 되고 있다. 합작을 조건으로 내세워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

도 설계경기때마다 나오는 유언비어들은 흘러버릴수만 없는 양금을 남긴다. 외국의 설계조직에 있는 한국연고자들이 상종가를 치달리고 있다던가, 한국의 일을 연결하지 못하는 한국인은 얼굴을 들지 못한다던가 하는 소문은 소문이 소문이 아님을 알게 한다. 계획안을 세일즈하는 외국인의 전화를 받았다든 주변의 이야기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공방에서 심사장으로 곧장 반입되는 판넬과 모형의 임자가 이곳 사람이더라는 풍문까지 떠돌고 있다. 나라살림이 바닥났다고 들썩이는 원인중에 우리도 한몫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외국의 디자인을 내밀고 대리전을 벌이는 설계경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다. 이제 공급이 되어 버린 환율로 그 일이 쉽지 않게 되었다면 오히려 IMF가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건축사의 윤리를 따짐에 있어서 남의 것을 제것인양 하는 염치없음은 어떤 항목에 속하는 것일까?

처음으로 돌아가 좋은 건축의 안을 널리 모아 바르게 뽑는 것이 설계경기의 목적이라고 다시 확인하자. 올해의 결과들이 과연 그러하였는지를 알기알부하기보다 그것들이 어떤 메시지를 만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 너무도 합리적이고 너무도 타당한 결과들이 아닌가를 확인하자. 지극히 당연하게도 결과는 그러하여야 하지만 누가 하였더라도 그리될 수밖에 없는 그렇고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난다면 올해의 설계경기는 하나마나 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보편타당한 논리와 그것에 부가된 약간의 감각만으로 건축이 결정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수준이 기본기수련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창의성과 건축적성으로 인해 우리를 감탄하게 하는 결과를 어찌서 만날 수 없는가? 만들어 제시하지 않기 때문인가 아니면 뽑아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처음부터 그러한 기대가 없었던 설계경기라면 무엇 때문에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설계자를 선정하기 위한 요식행위인가? 그렇다면 제비뽑기가 더욱 쉬운 방법이지 않은가? 아니면 지난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어도 누가 뭐라할 것인가? 새로움이 보이지 않는 일상의 반복은 결국 매너리즘이며 그것은 정체가 아니라 퇴보일 뿐이다. 오늘의 이 땅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 그리 따라가는 수 밖에는.



고양노인복지회관(주영정)



김해문화예술회관(신동재+강남홍)